

Research Center

2015년 4월 20일

투자전략 Daily

• Strategic Insight

말괄량이 길들이기 (2) : 그리스와 금리

• 이머징마켓 동향

지표, 매출 증가 등 등에 주요 이머징 혼조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영원무역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KCC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자동차, 은행, 코웨이, 롯데칠성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자산배분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황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 ETF | 강승철 ☎ 3276-6181
스몰캡전략 | 정훈석 ☎ 3276-6232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채 권 분 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해 외 채 권 | 진은정 ☎ 3276-6231

truefriend 한국투자 증권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4/10(금)	4/13(월)	4/14(화)	4/15(수)	4/16(목)	4/17(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87.76	2,098.92	2,111.72	2,119.96	2,139.90	2,143.50	
	등락폭	28.89	11.16	12.80	8.24	19.94	3.60	
	등락종목	상승(상한)	509(4)	450(13)	349(7)	502(16)	459(6)	464(8)
		하락(하한)	313(0)	363(0)	483(0)	306(0)	354(0)	347(0)
	ADR	124.31	126.12	120.20	125.32	124.59	126.47	
	이격도	10 일	101.97	102.18	102.45	102.39	102.80	102.49
		20 일	102.45	102.71	103.13	103.31	104.02	103.93
	투자심리	80	80	80	90	90	90	
	거래량 (백만 주)	658	562	649	451	476	458	
	거래대금 (십억 원)	6,415	7,020	8,052	7,379	7,320	6,249	
코스닥	코스닥지수	682.02	689.39	684.97	694.44	698.31	706.90	
	등락폭	5.06	7.37	-4.42	9.47	3.87	8.59	
	등락종목	상승(상한)	509(26)	450(23)	349(13)	502(21)	459(13)	603(15)
		하락(하한)	313(0)	363(2)	483(4)	306(2)	354(0)	377(5)
	ADR	106.07	106.17	102.47	110.17	111.65	112.91	
	이격도	10 일	103.15	103.59	102.40	103.13	102.98	103.50
		20 일	104.92	105.62	104.55	105.47	105.52	106.29
	투자심리	80	80	80	90	90	90	
	거래량 (백만 주)	602	709	829	620	699	660	
	거래대금 (십억 원)	4,220	4,631	5,380	3,986	4,543	4,849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3,474.7	1,580.0	1,169.5	254.6	150.2	226.4	94.6	60.7	383.07	59.3
	매도	3,623.4	1,299.9	1,307.7	273.3	167.6	425.5	124.9	41.8	274.6	52.5
	순매수	-148.7	280.1	-138.2	-18.7	-17.4	-199.1	-30.3	18.9	108.5	6.8
	4월 누계	-444.4	2,152.1	-1,560.0	-445.5	-99.4	-1,793.3	165.4	37.4	575.4	-147.7
	15년 누계	-1,848.2	5,299.2	-4,546.4	-2,757.6	-26.2	-4,363.3	-207.2	153.4	2,654.7	1,095.3
	코스닥	매수	4,340.0	264.9	257.8	69.8	29.3	45.4	37.8	13.2	62.3
매도		4,304.4	350.2	198.0	54.1	18.4	50.8	23.1	5.0	46.6	41.6
순매수		35.6	-85.3	59.8	15.7	10.9	-5.3	14.7	8.2	15.6	-10.0
4월 누계		373.5	2.1	-276.1	-64.5	2.4	-138.3	-25.6	1.3	-51.3	-99.5
15년 누계		894.6	-210.7	-50.0	-144.1	160.6	-137.4	-108.3	24.3	154.9	-633.9

말괄량이 길들이기 (2): 그리스와 금리

2015년 Target KOSPI	2,130pt
12MF PER	10.16배
12MF PBR	0.98배
Yield Gap	8.2%P

- ▶ 2분기 최대 리스크는 금리 변동성 확대
- ▶ 이슈 세 가지 : 중국의 지준을 인하와 증시 과열 규제, 미국 핵심 CPI, 그리고 그리스
- ▶ 투자전략 : 단기 조정의 시각 vs. 중기 긍정의 시각

■ 2분기 최대 리스크는 금리 변동성 확대

유동성 장의 천적은 금리 변동성 확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이머징, 특히 한국시장의 유동성 랠리가 강화되고 있다. KOSPI는 이번 달에만 5% 가까이 상승해 2,140선을 돌파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강도는 아직 약화될 조짐이 없다.

그러나 유동성 장의 천적 중의 천적(天敵)은 ‘금리 변동성 확대’다. 최근 시장은 저금리와 유동성에 매우 의존적인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조달금리가 높아지면 캐리(carry) 자금이나 차입매수(arbitrage) 형태의 투자 자금들은 일부 현금화가 불가피해진다. 2분기 시장을 쉬어간다고 본 것은 이 때문이었다.

- 1) 중국 우산신탁 규제
- 2) 미국 핵심 CPI 반등
- 3) 그렉시트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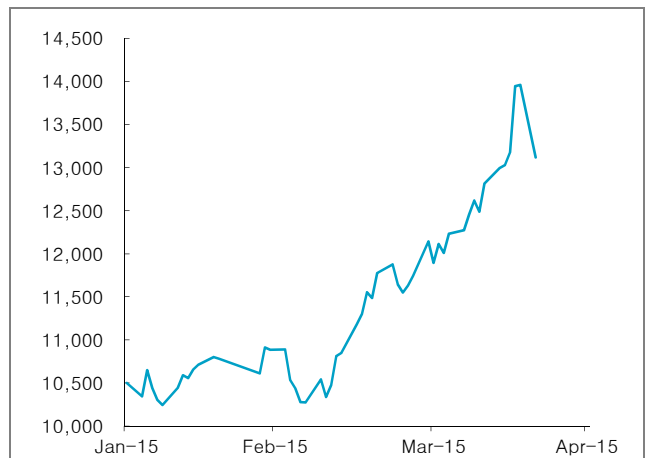
만약 필자의 예상과 달리, 2분기 중 금리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시장은 별다른 조정 없이 다이렉트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지난 주말 나온 재료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첫째, 중국 규제당국의 우산신탁 마진거래 규제 발표로 중국 본토 ETF와 선물지수가 5~6%씩 급락했다. 둘째, 미국 3월 핵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8%로 반등해 29일 FOMC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셋째, 4월 24일 유로그룹 미팅을 앞두고 그리스 재정개혁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구(舊) 재정위기국 금리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그림 1] 그리스 CDS Premium 급등세



자료: Bloomberg

[그림 2] FTSE 중국 A50 선물 6% 급락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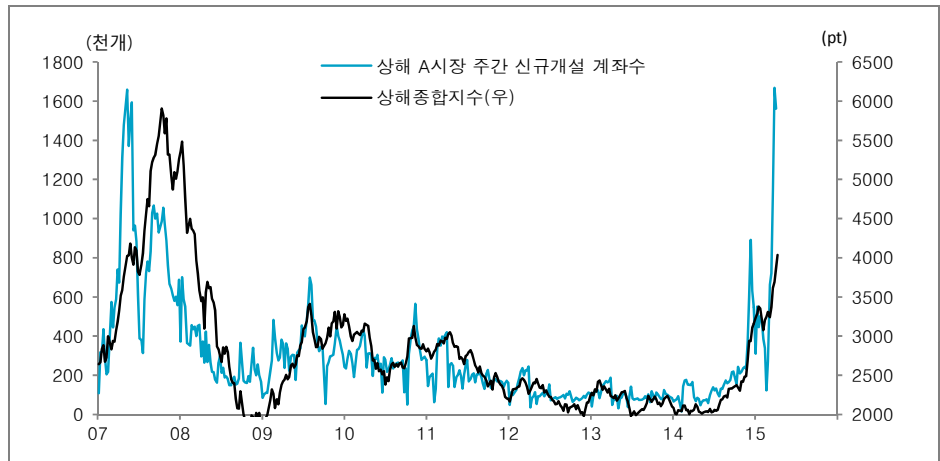
금리인하 불구 유동성은
실물경제로 가지 않고
증시로만 흘러
: 중국 정부가 추가 인하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까닭

■ 이슈 1 : 중국 마진거래 규제 - 우산신탁과 금리인하

중국 본토증시가 불과 6개월만에 두 배나 오르면서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과열 단속에 나섰다. 구체적인 내용은 1) 신용/대주거래 위법 행위 단속 강화, 2) 우산신탁과 편법 신용거래 금지, 3) 대주 거래 가능 종목 1,100개로 확대하는 것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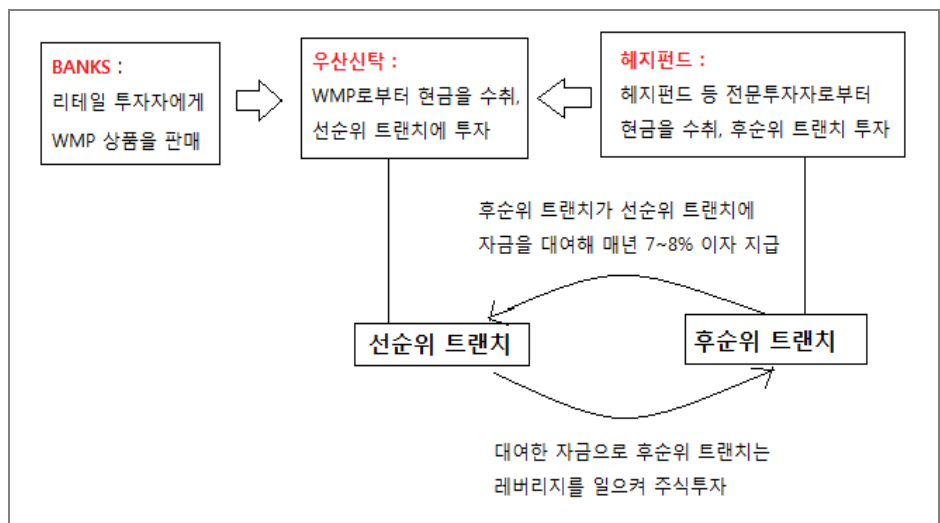
특히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우산신탁(傘形信託)은 그림자 금융의 일종인 WMP를 통해 과잉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형태로 아직 공식적인 집계는 없지만 규모가 약 6천억 위안(상해 A시장 시가총액의 약 1.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최근 신규 개설 계좌수가 주간 단위로 160만개에 달하는 등 과열 기미가 농후해지자 다급하게 규제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상해 A주 주간 신규개설 계좌수 : 2007년 고점 수준에 육박



자료: Bloomberg

[그림 4] 중국 마진 거래에 사용된 우산신탁의 구조



정리: 한국투자증권, Wall Street Journal 그래픽 재구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시 과열이 당국으로 하여금,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19일(일) 오후 6시 인민은행이 기준율 100bp 인하를 발표했지만 사실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의 악화 정도로만 보면 추가 금리인하를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소극적 대처라고 보여진다. 증시 과열도 싫지만, 증시가 급락하는 것도 싫은 것이다. 정책 당국이 허둥대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얼마 전 발표된 3월 위안화 신규대출 데이터는 ‘중국 정부의 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증시 과열만 부추기고 있다’는 물증이 됐다. 3월 신규대출 9,955억 위안 중 중장기 대출은 2월 6,900억 위안에서 5,313억 위안으로 감소한 반면 나머지 절반은 전부 단기 대출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면 가뜩이나 과열된 증시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 된다. 당사 중국분석 담당 최설화 연구원도 ‘당분간은 통화 완화보다는 재정지출 확대, 세금 감면, 수출 부양 등의 옵션이 우선시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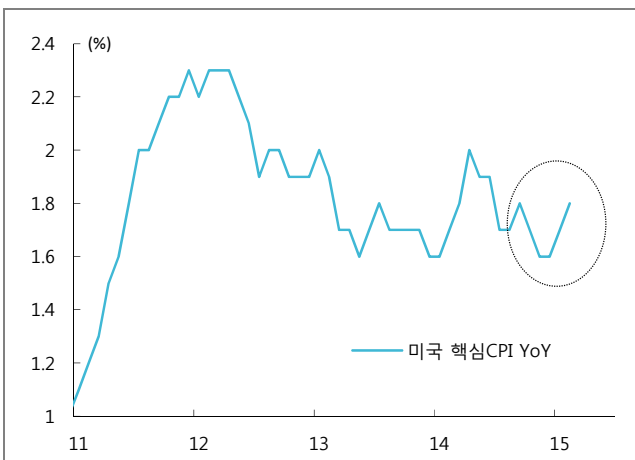
■ 이슈 2 : 미국 핵심물가 반등 - 4월 29일 FOMC

미국 경제지표와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논란

미국 3월 소비자물가(CPI)가 전년동월비 0.1%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가격변동이 심한 에너지와 신선식품을 뺀 핵심 CPI는 전년동월비 1.8%를 기록해 2개월 연속 반등했다는 점이다.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에는 못미쳤지만 2개월 연속 핵심물가가 반등했다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이슈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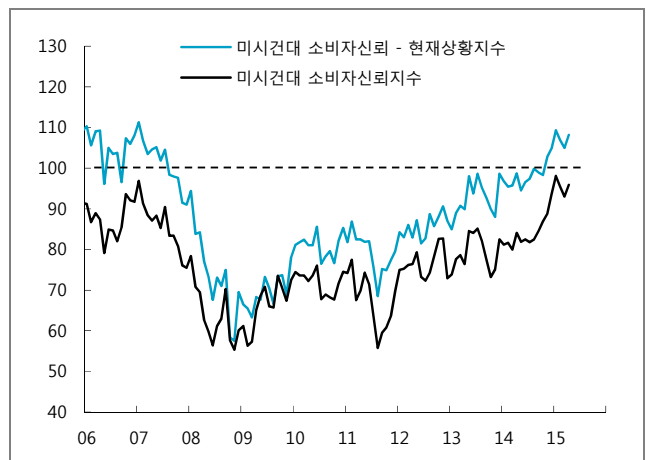
게다가 봄이 오면서 소비심리도 살아나고 있다. 금요일 발표된 4월 미시건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보다 큰 폭 올랐고, 시장 예상치도 웃돌았다. 4월 경제지표는 아직 서베이 지표 이외에는 발표된 것이 없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지표에 대한 기대치가 거의 바닥 수준이라 지표가 잘 나오면 나올수록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본다.

[그림 5] 미국 3월 핵심 소비자물가 반등세



자료: Bloomberg

[그림 6] 미시건 소비자 신뢰지수 반등



자료: Bloomberg

■ 이슈 3 : 그렉시트 우려 - 유럽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요인

그렉시트 우려
: 유럽 금리 변동성 확대

오는 4월 24일은 그리스 정부의 개혁안 제출 마감 전 채권단과 중간점검을 가지는 브릿지 미팅일이다. 그러나 현재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 요구사항은 노동개혁과 연금 개혁 등 주요 사안마다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으며, 이 때문에 조기 협상 타결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스는 작년 말 구제금융 분할금 72억 유로를 받지 못해 채무상환 등이 일제 중단된 상황인데 이 분할금을 4월 말까지 수령하면 5월 대규모 자금상환 기일들을 무사히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 전망이 불투명한 것이다.

<표 1> 그리스 정부의 주장과 채권단의 요구사항 비교

분야	그리스 정부의 개혁안	채권단 요구 사항
조세제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 개혁을 통해 30억 유로 이상 세수 추가 확보 가능. 해외 예금에 대한 조사/과세 등 - 국세청과 전자시스템 연동으로 부가가치세(VAT) 수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VAT) 23% 전 산업으로 확대 요구. 그리스령 섬 내 부가가치세 할인 폐지 등
국유자산 민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 초기 민영화 전면 중단을 발표했으나 현재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지속 추진 약속. - 그러나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경쟁률도 낮아 전망은 부정적. 피레우스항, 지역 공항 등 민영화로 15억 유로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효율 및 신속한 재정적자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민영화 추진 요구. - 2020년까지 국유자산 민영화로 인한 수입 223억 유로 확보 요구.
노동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후퇴를 발생시키는 임금 삭감 반대. 최저임금의 점진적 인상, 해고절차 간소화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삭감 요구, 해고절차 간소화를 통한 노동시장 자유화. 최저임금 인상 반대
연금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후퇴 효과를 발생시키는 연금 삭감 반대. 현행 연금 수혜조건 유지 - 저소득 연금 수혜자에게 13월의 연금 지급 계획, 11억 유로 지출 예정. - 재정적자시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3억 2천만 유로 지출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제도 개혁을 통한 정부지출 감축 요구 (55-64세 경제활동 비중 36%로 매우 낮음) - 연금 수령연령 및 조건을 67세, 최소 근무경력 40년 이상으로 상향 수정 요구
재정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 초기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흑자 1~1.5% 제안했으나 4월 제출된 개혁개정안은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흑자 3.1~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흑자 3.0% 유지
채무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의 일괄적 탕감, 영구채 및 명목성장률 연동 채권으로의 스와프 등을 제안. 또한 원활한 채무상환을 위해 단기 자금조달 제한 해제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스의 채무조정에 대한 모든 요구 거절
인도주의적 위기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공충을 위해 주거보조비, 식량 쿠폰, 전기 공급 등에 재정지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확보 및 채무 상황 우선

정리 :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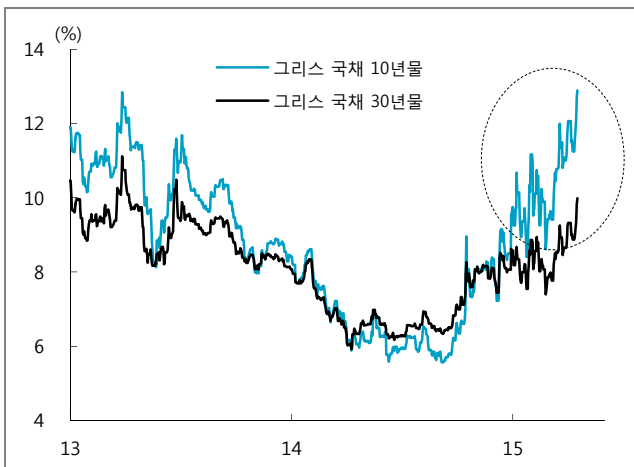
문제는 1) 그리스의 자금상환 관련 스트레스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고 2) 이것이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과 같은 구(舊) 재정위기국의 금리 수준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현재 1.9% 수준이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1.4%로 50bp나 낮은 상황을 단순히 ECB의 양적완화라는 수급의 문제로 정당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독일과 이탈리아/스페인의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이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여기에 최근 유럽시장에는 회사채 시장에서도 ‘묻지마 투자’가 단행되면서 BB 등급의 정크 기업이 4%로 채권 발행에 성공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많아지는 상황이다.

<표 2> 그리스 구제금융 및 개혁안 제출 관련 스케줄

일시	내용
4월 14일	17억 유로 사회보장기금 지급, 6개월물 단기 국채 14억 유로 차환
4월 17일	3개월 단기국채 10억 유로 차환, 1.9억 유로 이자지급(채권단)
4월 20일	0.8억 유로 이자 지급(ECB)
4월 24일	유로그룹 회의. 구제금융 잔여분 지급 관련 bridge 미팅
4월 30일	17억 유로 공무원 봉급 및 연금 지급 기한
5월 6일	1.9억 유로 상환(IMF)
5월 8일	14억 유로 단기채 차환
5월 11일	유로존 19개국 재무장관회담
5월 12일	7.1억 유로 상환(IMF)
5월 15일	14억 유로 단기채 롤오버
6월 5일	3억 유로 상환(IMF)
6월 12일	3.4억 유로 상환(IMF), 36억 유로 단기채 롤오버
6월 16일	5.7억 유로 상환(IMF)
6월 19일	3.4억 유로 상환(IMF), 16억 유로 단기채 차환
6월 30일	구제금융 협상 연장기한 종료
7월 10일	20억 유로 단기채 차환
7월 20일	35억 유로 만기도래(EC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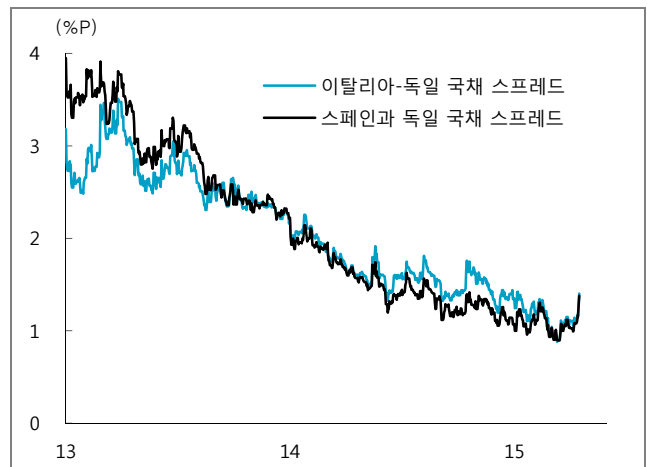
정리 : 한국투자증권

[그림 7] 그리스 국채 금리 급등세



자료: Bloomberg

[그림 8] 이탈리아와 스페인, 독일 국채와의 금리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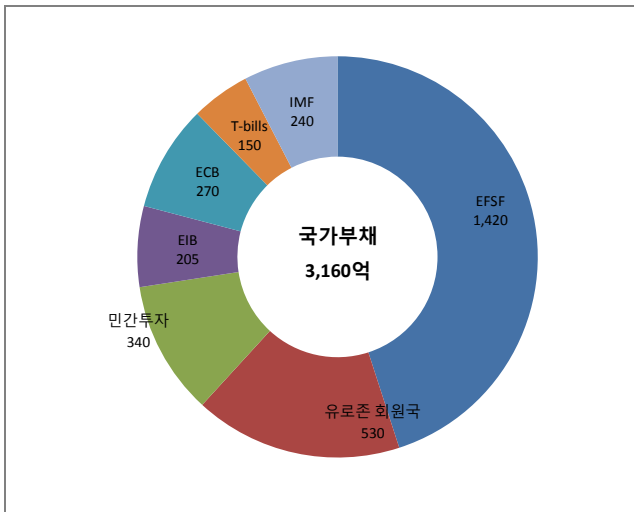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투자전략 : 단기 조정의 시각 vs. 중기 긍정의 시각

2015년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 시각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등장에서 마음이 다소 불편한 것은 1) 현재 시장이 저금리와 유동성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2) 이 경우 일시적인 금리 변동과 유동성 상황의 변화에도 시장이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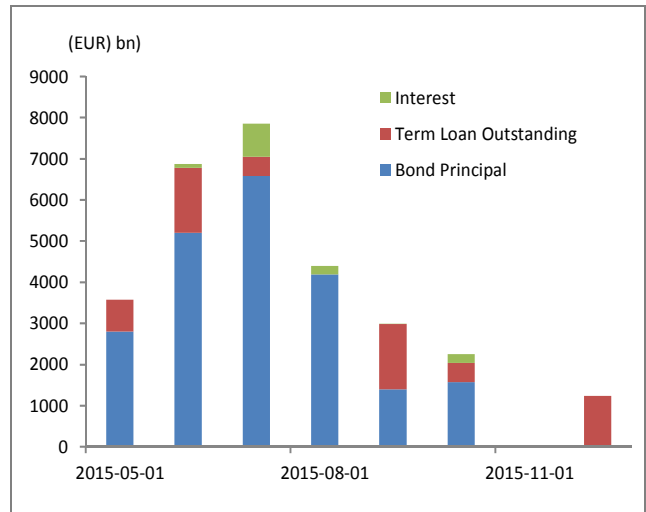
오늘은 관련하여 1) 중국의 신용규제 2)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 가능성 3) 그리스와 유럽 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해 다루었다. 물론 필자의 예상과 달리, 2분기 중 금리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시장은 별다른 조정기를 거치지 않고 디렉트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지난 주말 나온 재료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과 향후 궤적에 대한 전망 등은 5월 월간전략에서 다룰 예정이다.

[그림 9] 그리스 국가부채와 채권자



자료: Bloomberg

[그림 10] 그리스 만기도래 부채 및 이자지급



자료: Bloomberg

■ Appendix 1 : 전주 동향 및 기업실적 추정치 변경

KOSPI는 2011년 이후 최초로 2,100선을 상향 돌파하며 강한 상승세를 지속했다. 저금리 기조로 인한 유동성 장세와 중국 1분기 GDP의 부진으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국채 3년물은 전 주 대비 1.5bp 하락한 1.69%에서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9월 하락한 1,083.7원에서 마감했다.

한편 업종별로 볼 때 제약, 화장품을 제외하고 강세 업종이 순환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동안 안심전환대출과 MBS 물량 부담 등으로 약세를 보였던 우리은행(+12.1%), 기업은행(+11.6%) 등 은행주가 반등했고, 롯데칠성(+17.4%), 빙그레(+8.6%) 등 음식료주 역시 원/달러 환율 하락과 1분기 실적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다.

셀트리온(+15.7%), 유한양행(13.9%) 등 제약 관련주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한 기대감에 강세를 이어갔고, 화장품 업종의 전반적인 강세 가운데 아모레퍼시픽(+9.9%)이 391만원으로 마감하면서 시가총액 7위에 등극했다. 또한 현대산업과의 합작으로 서울 시내 면세점 출점에 대한 기대감에 호텔신라(+20.7%)가 급등했다.

지난 주 증권(삼성증권)업종의 실적 추정치는 상향된 반면, 금속 및 광물(고려아연, 포스코, 세아베스틸), 유통(GS홈쇼핑, CJ오쇼핑, 이마트) 등의 추정치는 하향됐다.

<표> 업종별 주간 EPS 변화율 및 등락률 변화

Name	수익률 (%)			12MF EPS CHANGE (%)		12MF Valuation (X)	
	1W	1M	YTD	1W	1M	PER	PBR
에너지	1.56	14.37	25.76	0.81	7.74	11.03	0.80
소재	1.61	9.36	17.13	0.38	4.06	12.04	0.81
화학	2.46	14.74	34.75	1.00	7.05	13.92	1.08
금속 및 광물	3.01	9.03	13.08	-2.00	0.69	13.44	1.45
산업재	3.91	8.12	15.52	0.28	3.25	17.52	1.16
자본재	4.70	8.83	18.07	0.35	2.68	18.03	1.07
건설	6.90	14.15	27.22	1.42	3.71	15.44	0.94
조선	2.30	11.96	15.09	-1.96	3.98	23.05	0.72
상업서비스	3.67	11.76	17.95	-0.55	-0.32	21.01	2.96
운송	-0.16	3.73	2.08	0.06	6.17	14.95	1.73
경기소비재	4.08	4.99	12.26	-1.33	-2.90	9.79	1.08
자동차/부품	2.56	-4.18	-1.83	-1.73	-3.92	6.18	0.74
내구소비재/의류	5.17	19.34	41.44	0.67	2.57	26.77	3.63
소비자 서비스	9.14	18.40	29.87	-0.18	1.36	20.53	3.43
미디어	0.53	12.93	31.48	0.06	2.19	18.57	1.71
유통	6.47	11.83	17.49	-1.02	-3.16	13.72	0.83
필수소비재	3.70	15.60	28.17	-0.37	1.27	21.15	2.09
음식료/담배	3.34	15.86	26.37	-0.60	0.70	19.82	1.83
생활용품	5.61	16.51	41.55	0.99	4.99	30.57	6.45
의료	6.45	27.61	52.32	0.18	1.25	26.32	2.39
제약/바이오	6.47	27.70	52.49	0.18	1.25	26.32	2.39
금융	5.95	9.66	7.51	-0.32	1.27	10.74	0.70
은행	7.77	3.18	2.30	-0.33	-0.48	8.37	0.52
기타금융	3.05	0.30	0.70	0.00	0.99	8.88	0.69
증권	2.10	38.87	58.25	1.12	13.50	16.33	1.20
보험	5.81	5.77	-5.42	-0.94	0.14	12.72	0.90
IT	-1.12	-2.28	5.50	0.01	6.04	9.77	1.26
소프트웨어	1.58	1.53	-3.08	-0.26	-1.10	28.18	4.24
하드웨어	-1.60	-3.62	21.94	0.87	8.34	16.07	1.14
반도체	-2.03	-3.18	6.79	-0.02	7.11	8.21	1.14
디스플레이	3.72	-1.51	-4.18	0.96	0.57	7.91	0.88
통신서비스	2.42	-1.47	-1.09	0.14	2.81	10.95	1.07
유틸리티	7.80	6.48	7.80	0.93	-3.79	5.07	0.54

주 : 수익률은 전 주 마지막 거래일, 추정치는 그 직전일 종가 기준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2 : 주간 글로벌 업종별 등락을 상위/하위

지난 주 Bloomberg World Index 업종 중 상승률 상위는 조선(+15.2%), 다각화된 기계(+8.8%), 엔지니어링&건설(+6.2%), 장난감/게임/취미(+6.0%), 그리고 석유 & 가스(+4.0%) 업종이 차지했다. 반면 저장/창고(-10.8%), 호텔/카지노(-4.2%), 미디어(-2.4%), 유통(-2.3%), 그리고 광고(-2.1%) 등은 부진했다.

지난 주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한 조선, 기계, 엔지니어링&건설 업종 지수의 공통점은 시클릭업종이라는 점과 중국 기업들의 시총이 지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업종 지수 내 상승률 상위 5개 기업 중 4군데가 중국 기업이다. 16일 중국조선업협회(China Association of the National Shipbuilding Industry, CANSI)가 올 1분기 신규 선박 주문이 전년동기비 76% 이상 하락했다고 발표하는 등 업종 전반적인 부진 가운데 상승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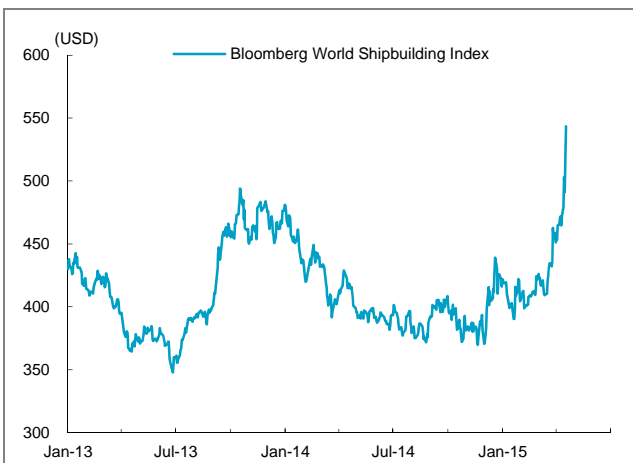
사실 이번 주 중국 조선 업종의 강세는 업종 자체보다 중국/홍콩 증시 강세에서 기인한 점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주 강세를 보인 중국 조선업체들은 중국 내 최대 규모의 조선소들이라는 점이 상승세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다. 중국 조선업은 현재 침체 국면에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데, 만일 정부의 부양책으로 경기가 회복될 경우 대형주들이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Bloomberg World Index 업종별 전주대비 수익률 상승/하락 상위

상승 상위	수익률 (%)	하락 상위	수익률 (%)
조선	15.24	저장/창고	-10.76
다각화된 기계	8.77	호텔/카지노	-4.21
엔지니어링&건설	6.15	미디어	-2.41
장난감/게임/취미	6.01	유통	-2.29
석유&가스	4.01	광고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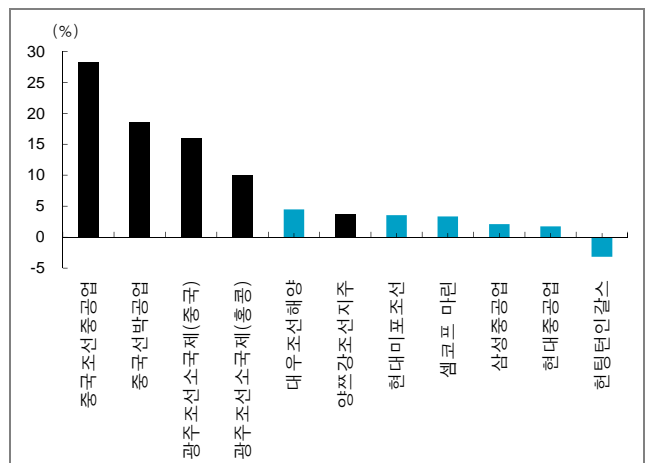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블룸버그 조선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조선 업종 내 주요 기업 1주 상승률



주: 중국 업체는 검정색으로 표시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3 : 주간 글로벌 주식형, 채권형 펀드 유출입

그 동안 계속 엇갈리던 선진국과 신흥국 주식형 펀드 자금은 지난 주에 들어 모두 순유입세로 전환했다. 선진국(International, Pacific)에는 44.1억 달러가 유입됐고, 신흥국(Asia ex-Japan, GEM)에는 12.9억달러가 유입됐다.

채권형의 경우 글로벌, 미국, 이머징 채권형, 하이일드 펀드 모두 순유입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지난 주 순유입세를 기록했던 이머징 통화 표기 채권 펀드군은 1주만에 순유출세로 재차 전환했다.

〈표〉 글로벌 주식형 펀드 유출입

(단위: 백만달러)

구분	지역	자산규모	한국비중	자금유출입		
				최근 1주	최근 4주	2015년
선진국 투자펀드	International	2,111,064	1.4%	4,454.8	11,458	43,920
	Pacific	54,977	5.1%	-45.9	260	1,272
	Asia ex-Japan	426,419	14.3%	565.5	-4,149	-6,866
신흥국 투자펀드	Global Emerging	481,271	9.6%	724.6	1,943	-4,730
	Latin America	27,378	-	-105.5	-526	-2,868
	Europe/Middle East/Africa	47,049	-	54.5	-53	-120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표〉 글로벌 채권형 펀드 유출입

(단위: 백만달러)

구분	지역별/시장별	자산규모	자금유출입		
			최근 1주	최근 4주	2015
전체 채권 펀드 (미국+신흥국+인터내셔널+하이일드)		3,541,572	4,617.2	26,266.2	115,356.3
신흥국 채권 펀드 (EM bond totals)		253,231	612.9	1,465.2	499.8
	- EM 경화(\$) 채권	110,925	636.5	1,562.3	2,067.6
	- EM 신흥국 통화 채권	95,183	-246.3	-601.6	-2,559.5
	- EM Blend 통화 채권	47,124	222.6	504.4	991.7
인터내셔널 채권 펀드		1,113,686	2,126.8	9,375.7	36,612.0
하이일드형 채권 펀드		489,617	1,481.2	5,343.2	20,167.3
미국 채권 펀드 (US bond totals)		1,685,038	396.3	10,082.1	58,077.3
	- Municipal	369,014	-584.5	-206.5	4,993.4
	- Floating Rate	107,636	472.2	36.4	-3,597.7
	- Inflation Protected	52,150	44.1	192.3	1,028.1
	- Inter. Term Corp.	26,735	154.8	546.5	1,923.9
	- Inter. Term Funds	403,222	183.3	3,293.5	18,292.7
	- Inter. Term Gov.	27,839	77.0	311.4	1,478.9
	- LT Bond	9,321	-61.7	6.6	891.3
	- LT Corp.	36,846	133.8	1,114.1	5,258.7
	- LT Gov.	19,136	577.8	1,464.4	752.2
	- MBS	81,529	28.3	799.2	5,744.3
	- ST Bond	227,038	-935.0	-2,160.9	-6,098.7
	- ST Corp.	33,947	-165.1	-52.9	847.7
	- ST Gov.	37,272	-80.2	-437.6	492.6
	- Total Return	253,354	551.4	5,175.7	26,069.9
기타 채권 펀드 (Other bond totals)		4,382,466	-36,881.4	-62,216.0	-52,546.0
	- MMF 채권펀드	3,544,003	-39,560.6	-70,988.3	-81,251.0
	- Balanced Funds	838,463	2,679.2	8,772.3	28,705.0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4 : 주요 증시 일정

20(월)	21(화)	22(수)	23(목)	24(금)
실적발표> 韓 대림산업 美 모간스탠리	獨> ZEW 서베이 예상 실적발표> 韓 포스코, LG생활건강 美 IBM, 두폰, 트레블러스,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버라이즌, 야후	日> 3월 무역수지 美> 3월 기준주택매매 실적발표> 韓 LG디스플레이, 쌍용차 신한금융지주 美 보잉, 코카콜라, 맥도날드 AT&T, 이베이, 페이스북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韓> 1분기 GDP 잠정치 中> 4월 예비 HSBC 제조업 PMI 유럽> 4월 예비 마켓 제조업 PMI 美> 3월 신규주택매매 실적발표> 韓 KT&G, 현대차 美 P&G, 마이크로소프트 캐터필러, 쓰리엠, 퀄컴, 제너럴 모터스, 스타벅스, 구글, 아마존	美> 3월 내구재 주문 獨> IFO 기업환경지수 유럽>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실적발표> 韓 삼성전기, 현대위아, 만도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기아차 美 바이오젠
27(월)	28(화)	29(수)	30(목)	5/1(금)
실적발표> 韓 한국항공우주 삼성엔지니어링 日 다카시마야, 히타치 마쓰이증권, 교세라 도쿄전력	美> 4월 소비자가대지수 실적발표> 韓 KB금융, 삼성SDI 롯데케미칼, LG유플러스 LG이노텍, 두산인프라코어 美 포드, 화이자, 애플 日 NTT 도코모, 다이와증권 유럽 방코 산탄데르, 토탈 다임러	美> 1분기 GDP QoQ 독일> 4월 예비 소비자물가지수 실적발표> 韓 삼성전자, 제일모직 LG전자, 우리은행 대우증권, 넥센타이어 美 마스터카드 유럽 폭스바겐	美> FOMC 통화정책회의 3월 개인소득 韓> 3월 광공업 생산 YoY 日> 3월 예비 광공업생산 MoM 유럽> 3월 실업률 실적발표> 韓 삼성화재, SK이노베이션 기업은행, KT, 한국타이어 동부화재, 현대해상 금호타이어, 메리츠화재 美 글게이트, 비아콤 日 노무라홀딩스, 야마하 재팬토바코 유럽 BNP파리바, 바이엘 BASF, 노키아 에어버스	韓> 4월 수출 YoY 4월 수입 YoY 4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中> 4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美> 4월 ISM 제조업지수 4월 미시간대 소비자지수

정리: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서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지표, 매출 증가 등 등에 주요 이머징 혼조

- ▶ 상해종합지수는 증시에 대한 국내외 증권사 들의 긍정적인 전망, 자금 유입 등에 2%대 상승
- ▶ 홍콩 증시는 차익실현 매물 출회, 미국 경제지표 부진, 매수여력 약화 등으로 1%대로 하락
- ▶ 자카르타종합지수는 지표 개선, 차익실현 매물 증가, 해외 불확실성, 외국인 매도 등에 약보합
- ▶ VN지수는 IMF의 긍정적인 전망,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 차익부담 등에 강보합세로 마감

상해종합지수 2.2% 상승,
에너지, 운송, 기계장비, 소재 등 상승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2.2% 상승한 4,287.3p로 마감하며 연속 이틀간 강세를 보였다. 급등세로 출발한 증시는 오후에 4,300선을 상회하기도 했으나 장 마감 막바지에 소폭 하락했다. 거래대금은 9,156억위안으로 직전일보다 크게 증가했다. 주간단위로 지수는 6.2% 상승했다. 금주 신주발행에 몰렸던 1.8조위안의 청약자금이 해제되면서 증시에 다시 유입된 가운데 국내외 증권사들이 일제히 중국증시의 추가 강세를 전망해 투자심리가 크게 고무됐다. 업종별로는 저평가 매리트가 부각되며 은행주들이 상승했고 에너지, 운송, 기계장비, 소재, 유틸리티 등 정책 수혜업종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대형주들이 상승에 대비해 중소형 성장주들이 약세를 보이며 차스닥 지수가 0.8% 하락하며 조정을 받았다. 금일 거래 재개한 복성의약은 제3자공모발행 소식에 힘입어 10% 급등하며 상한가로 마감했다.

홍콩H지수 1.25% 하락,
부동산, 은행, 에너지 등 대부분 업종 약세

■ 홍콩 시장

홍콩H지수가 1.25% 하락한 14,536.67p로 마감하여 본토증시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강세로 출발했으나 본토 증시 마감이후 낙폭을 확대해나갔다.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가 주요 약세 배경이다. 또한 미국 경제지표 부진도 증시에 부정적이었다.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반면 철도, 전자재, 유틸리티, 부동산, 에너지 등 업종은 일대일로 등 본토 정책기대로 상승 마감했다. 금일 거래 재개한 복성의약(2196HK)은 제3자 신주발행에 힘입어 16.8% 급등하며 본토 동반 강세를 보였다.

자카르타종합지수하루 만에
약보합세로 전환, 금융, 유통 등 관련주 약세

■ 인도네시아 시장

자카르타종합지수는 장중 등락을 반복한 끝에 약보합세로 마감했다. 수출 감소세 진정, 무역흑자 규모 확대 등 양호한 지표 발표가 호재로 작용했으나 차익실현 매물 증가, 해외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 그리스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해외 불확실성 등으로 매수여력이 약해졌다. 금융, 유통 등 관련 주가 하락했다.

■ 베트남 시장

VN지수 강보합세로 마감,
금융, 에너지 등 업종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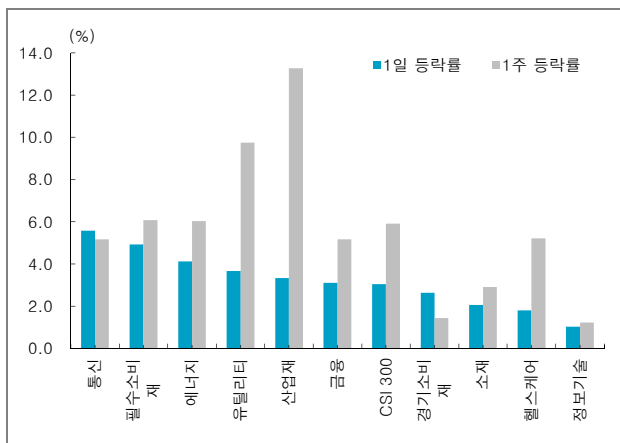
VN지수는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장중 강세가 우세했으나 마감 직전에 매물 출회로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IMF의 베트남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 은행권 구조조정 가속화 기대,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 외국인 순매수세 유지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금융, 석유, 건설 등 관련 종목은 강세를 나타냈다.

주요 이머징마켓 뉴스

시장 구분	주요 내용
중국	중국, 금일 1.8조위안에 달하는 신주청약자금 해제-Wind 중국 국무원, 행정 간소화 강도를 강도하면서 수출기업들의 부담 감소할 것 중국, 다음주 시장에 약 200억위안의 역RP 만기도래 예정-Wind
베트남	관세청, 1분기 무역적자 24억달러 기록
베트남	중앙은행, 인수합병을 통해 금융권 구조조정 속도 가속화할 것
베트남	IMF, 경제성장을 2015년 6.0%, 2016년 5.8%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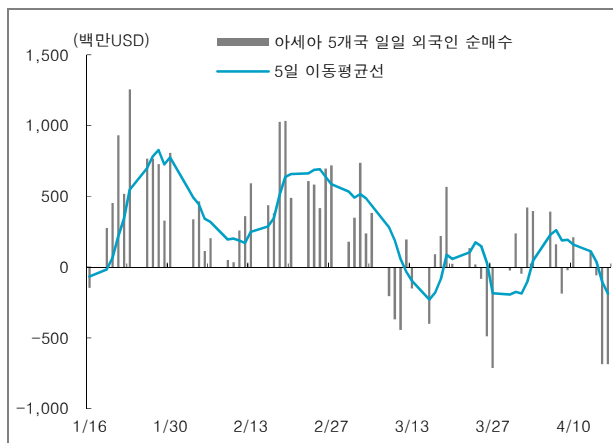
◆ 주요 이머징마켓 차트

[그림 1] 중국 CSI300 업종별 등락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아세아 5개국* 외국인 순매수 규모 추이



주: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5개국의 달러자금 흐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4/17(금)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4,287.30	2.20	6.00	11.92	29.68
홍콩 H	14,536.67	-1.25	7.07	19.23	22.82
중국 차스닥	2,484.33	1.74	-0.49	6.39	68.80
인도 SENSEX	28,456.81	-0.8	-0.53	2.14	3.84
인도네시아 JCI	5,410.64	-0.19	-1.46	-1.77	3.71
태국 SET	1,567.15	1.25	2.02	4.06	4.64
베트남 VN	568.32	0.01	3.23	3.11	4.15
MSCI 이머징마켓	1,036.87	0.01	0.80	6.39	8.42

주: 17일 오후 6시 15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코스닥, 7년3개월 만에 700P선 돌파에 성공

- 미국증시는 기업들의 시장 호조 및 금리인상 지연 전망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 부진과 그리스 우려감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소폭 하락 마감. 강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투신을 비롯한 기관과 개인의 차익실현 매도세로 하락반전 후 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세로 재반등해 옛새재 상승세를 이어가며 2,140P선 돌파에 성공.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 매수에 힘입어 1% 이상 급등, 7년3개월만에 700P선을 돌파하며 706P로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한방 화장품 ‘후’가 중국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에 LG생활건강이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이미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모바일게임 ‘뮤 오리진’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웹젠이 이를 연속 급등. 면세점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유진기업이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1분기 실적 기대 및 지속적인 매출 확대 전망에 BGF리테일이 신고가를 기록. 또한, 신약 개발 및 실적 개선, R&D 투자 성과 기대감 등으로 제약주들의 강세가 지속됐으며, 영업환경 개선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음식료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반면, 사업다각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스킨에니버셔리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씨그널정보통신이 10거래일 만에 급락했으며, 최근 상승세를 보였던 증권주도 이를 연속 하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 용
LG생활건강(051900) ▶880,000(+6.02%)	1분기 실적 턱어라운드 전망에 신고가 경신 - 화장품 브랜드 ‘후’가 중국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 알리바바의 타오 타오 물에서 화장품 판매 1위를 기록 - 아울러,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5%, 33% 증가한 1.29조원과 1,699억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웹젠(069080) ▶38,500(+6.94%)	‘뮤 오리진’ 흥행 기대감에 급등세 - 이달 말 정식서비스를 앞두고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중인 신규 모바일 MMORPG ‘뮤 오리진’의 사전 예약자가 70만명을 돌파하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 급등세 - 이에 앞서 중국에서 ‘전미기적’의 이름으로 출시돼 중국의 최대 게임스토어에서 상위권을 기록 중이며 유저수는 5억명으로 추정
유진기업(023410) ▶7,080(+10.28%)	면세점 사업 추진 소식에 신고가 경신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구MBC 사옥을 임대해 시내면세점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 면세 사업권 확보 시 기존 방송시설을 활용한 공연장, 호텔 등 면세점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연계사업도 추가 추진한다는 방침 - 최근 MBC와 면세점 입점과 함께 관광사업 활성화, 문화 콘텐츠사업 성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음식료	1분기 실적 기대감에 강세 - 영업환경 개선에 따른 판매량 회복, 제품가격 인상 효과, 안정적인 원가 흐름, 해외 법인 매출증가 등에 힘입어 1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 - 롯데칠성(005300, +6.91%), 오뚜기(007310, +5.96%), 삼양식품(003230, +5.34%), 빙그레(005180, +4.62%), 하이트진로홀딩스(000140, +4.43%), 오리온(001800, +3.65%), 롯데제과(004990, +3.38%), 롯데푸드(002270, +2.92%)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국내외 증시 동향 및 52주 신고가 종목 현황

구분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유가증권	IT	전기전자	대덕전자	10,400	8.6	건강관리	의약품	신풍제약	5,780	7.6
	소재	철강금속	포스코강판	17,750	11.3	건강관리	의약품	신풍제약우	3,775	9.4
	소재	종이목재	깨끗한나라	9,670	76.8	경기관련소비재	유통업	국동	17,000	12.2
	소재	화학	진양화학	5,260	13.7	경기관련소비재	화학	아모레퍼시픽	3,910,000	10.0
	소재	화학	금양	1,935	5.7	경기관련소비재	섬유의복	BYC	367,000	9.2
	소재	화학	진양산업	3,230	4.7	경기관련소비재	운수장비	S&T중공업	12,650	6.8
	경기관련소비재	서비스업	아모레G	1,621,000	5.0	경기관련소비재	화학	대원화성	3,070	10.8
	소재	화학	효성	98,700	7.6	경기관련소비재	섬유의복	방림	34,500	18.6
	소재	화학	애경유화	81,500	8.1	경기관련소비재	화학	덕성	5,250	41.1
	산업재	운수창고	동방	3,690	7.3	필수소비재	종이목재	모나리자	6,210	61.5
	산업재	비금속	아이에스동서	84,000	12.6	필수소비재	화학	LG생활건강	880,000	5.3
	산업재	운수창고	한익스프레스	65,800	32.1	필수소비재	음식료	오뚜기	711,000	8.1
	산업재	건설업	삼호	28,450	14.5	필수소비재	미분류	사조산업	114,000	27.2
	건강관리	의약품	유한양행	225,000	13.9	필수소비재	서비스업	풀무원	225,500	19.6
	건강관리	의약품	삼성제약	10,200	10.5	필수소비재	음식료	오리온	1,308,000	6.9
	건강관리	의약품	제일약품	33,850	13.2	필수소비재	서비스업	삼양홀딩스	119,500	23.5
	건강관리	서비스업	JW홀딩스	4,040	24.5	필수소비재	음식료	크라운제과	324,500	9.1
	건강관리	의약품	삼일제약	7,910	13.5	필수소비재	서비스업	하이트진로홀딩스	14,150	8.0
	건강관리	의약품	JW중외제약	22,500	27.5	필수소비재	음식료	삼양사	116,500	29.4
	건강관리	서비스업	녹십자홀딩스	32,350	6.8	필수소비재	서비스업	CJ	200,000	8.4
코스닥	IT	소프트웨어	지어소프트	1,730	49.1	건강관리	제약	경남제약	12,600	60.5
	IT	사업지원	엠펙씨	3,070	23.5	건강관리	화학	네오팜	28,050	10.0
	IT	전문기술	비에스이	7,780	41.5	건강관리	도매	서린바이오	16,000	11.9
	IT	소프트웨어	SGA	1,240	17.0	건강관리	도매	녹십자셀	49,250	11.4
	IT	기계,장비	피엔티	9,960	7.8	건강관리	제약	대한약품	23,000	8.2
	IT	IT부품	다원시스	26,900	14.0	건강관리	도매	위노바	2,260	32.9
	IT	반도체	STS반도체	4,890	16.3	건강관리	제약	대화제약	16,750	19.6
	IT	컴퓨터서비스	오상자이엘	21,600	14.3	건강관리	제약	동국제약	59,700	20.7
	IT	반도체	마이크로컨텍솔	16,900	10.5	건강관리	연구개발	제넥신	72,900	8.8
	IT	도매	에임하이	1,900	30.6	건강관리	제약	에스텍파마	14,650	11.0
	IT	IT부품	이라이콤	26,300	8.5	건강관리	의료기기	루트로닉	37,950	11.6
	IT	반도체	지스마트글로벌	18,000	24.1	건강관리	제약	셀루메드	5,830	24.0
	IT	반도체	에프에스티	3,720	13.4	건강관리	제약	메디포스트	102,100	37.6
	IT	반도체	엘오티베컴	8,030	13.4	경기소비재	미분류	뉴프라이드	1,560	38.1
	IT	컴퓨터서비스	아이크래프트	5,720	27.1	경기소비재	도매	메디프론	4,530	21.4
	IT	반도체	티씨케이	17,550	16.2	경기소비재	섬유의류	데코앤이	1,625	11.3
	소재	화학	한국알콜	7,280	18.0	경기소비재	종이목재	크린앤사이언스	5,180	8.3
	소재	도매	버추얼텍	2,740	16.8	경기소비재	소매	그랜드백화점	11,300	8.7
	소재	화학	이엔에프테크놀로지	16,050	18.9	경기소비재	출판복제	로엔	53,000	16.6
	산업재	비금속	유진기업	7,080	20.4	경기소비재	도매	참좋은레저	11,550	10.0
	산업재	사업지원	C&S자산관리	9,260	17.2	경기소비재	소매	큐렉소	5,930	27.3
	산업재	기계장비	한일진공	2,050	21.3	경기소비재	전문기술	오리콤	11,000	11.4
	산업재	기계장비	화성	8,150	10.3	경기소비재	도매	제로투세븐	13,450	19.0
	산업재	기계장비	조광LI	4,350	9.4	경기소비재	섬유의류	웰크론	3,935	40.0
	산업재	소매	서부T&D	23,850	22.3	경기소비재	소매	아이에스이커머스	5,790	20.6
	산업재	운송부품	해덕파워웨이	8,900	10.4	필수소비재	제약	나이백	12,000	14.8
	에너지	전문건설	에프티이앤이	4,200	35.9	필수소비재	음식료담배	네이처셀	6,100	30.1
	건강관리	제약	대봉엘에스	17,350	18.4	필수소비재	화학	보령메디앙스	21,950	35.9

주) 상기 종목들은 4월 17일 장중 기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의 현황이며, 등락률은 주간 등락률입니다.

단기 유망종목: 영원무역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영원무역 (111770)	61,800 (+16.4)	53,100 (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류 OEM부문은 원화 약세, 방글라데시 인건비 상승 둔화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지역은 신규 바이어 위주로 고성장 예상 - 연간 기준 두 자리수대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원가 경쟁력과 높은 가격 협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 지속 전망
솔루에타 (154040)	11,850 (-2.5)	12,150 (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폐 테이프 시장의 높은 성장성, 다변화된 거래처와 수직 계열화,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 등을 기반으로 안정적 성장세 지속 예상 - 전자파 차폐소재 수요의 견고한 성장세와 판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신제품 호조에 따른 실적 회복세를 고려할 때 여타 IT부품주들 대비 차별화된 성장성과 수익성 재부각 가능성 상존
영풍정밀 (036560)	11,100 (+8.8)	10,200 (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밸브의 부진으로 2014년 매출액은 감소했지만 저가 수주가 마무리됨에 따라 영업이익률 두 자리수대 회복 - 제품믹스 개선, 매출 다변화, 증설효과 등을 감안할 때 2015년 실적 개선 모멘텀에 대한 기대 유효 -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보유 중인 영풍과 고려아연의 지분가치가 시가총액의 150%(PBR 0.5배)로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매력 내재
진성티이씨 (036890)	6,480 (+14.3)	5,670 (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라향 매출은 장기공급계약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도 안정적으로 증가할 전망. 글로벌 메이저 굴삭기 업체들의 부품 아웃소싱 확대 추세 속에 Bobcat, Komatsu 등으로의 공급 물량 확대 예상. 해외 고객사 비중이 늘어나는 점은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 요인 - 중국 인민은행의 기준을 인하 결정, ECB의 양적완화 등을 감안할 때 글로벌 경기 재안정화 기대 유효
오로라 (039830)	13,000 (-5.5)	13,750 (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캐릭터 완구 1위 업체로 캐릭터 라이선싱 및 머천다이징으로 사업 확장 중 - 2015년 1월, '유후와 친구들' 시즌 3 방영 시작. 유럽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올해 전 세계 캐릭터 완구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미국 지역에 마케팅 역량을 강화할 계획 - 생산능력 제고와 함께 경영 효율성 강화로 영업이익률 10%대 안착 예상
바이오랜드 (052260)	26,200 (+6.9)	24,500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그룹의 중국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장 공략과 중국 해문공장 가동 본격화에 따른 성장성 재부각 가능성 - 전방산업의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각화된 사업구조와 다변화된 거래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예상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KCC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5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KCC (002380)	544,000 (-3.4)	563,000 (3/31)	3,528	329	260	26,571	2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자재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재료 매입액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 - 2014년 기말 배당금을 6년만에 주당 8천원으로 1천원 상향하며 주주 가치 제고에 노력 - 안정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풍부한 자산가치를 감안할 때 재평가 가능성 상존
현대모비스 (012330)	240,500 (-3.0)	248,000 (2/2)	38,488	3,297	4,058	42,468	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기아차의 친환경차 라인업 강화와 준중형모델들의 ADAS(운전보조장치) 채택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예상 - 현대/기아차의 누적 판매 대수 확대에 따른 AS부품 판매의 구조적 증가와 이익 방어력을 주목할 필요 - 견고한 펀더멘털 및 글로벌 peer 대비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엔씨소프트 (036570)	185,000 (+2.5)	180,500 (1/2)	861	266	220	11,035	1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선 가운데 기존 게임의 ARPU 상승과 길드워2 확장팩 출시 등으로 영업이익 개선세 지속 예상 - 리니지1의 수익성 높은 신규 아이템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리니지, 아이온, 블레이드앤소울의 추가 구성상품 선택을 통한 ARPU 상승 예상 - 2015년에는 블레이드앤소울 TCG, 패션스트리트, 팡야 등 모바일 게임 다수 출시 예정
LG하우시스 (108670)	176,000 (+10.3)	159,500 (1/2)	3,137	163	123	12,279	1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방산업의 회복으로 PVC 창호, 바닥재 등 건자재 건자재 매출 성장이 예상되며, 자동차, 가전관련 소재도 거래처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 가능할 전망 - PVC, 가소제, MMA 등 화학제품 가격 하락으로 원재료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 - 미국에 자동차 원단 공장 증설, B2C 건자재 확대(온라인 '지인몰' 오픈 등) 등 다각적 투자를 통한 장기 성장동력 강화
LG생활건강 (051900)	880,000 (+42.4)	618,000 (1/2)	5,083	600	427	25,640	3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에도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면세 매출호조와 방문판매 매출증가로 화장품 부문의 실적은 개선세 지속 예상 - 화장품 면세채널과 중국사업 정상화, 생활용품과 음료부문의 경쟁완화 등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주목할 필요
SK하이닉스 (000660)	44,550 (-6.7)	47,750 (1/2)	19,340	6,100	5,180	7,120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버, 모바일, 그래픽 등 D램 수요 확대로 D램 가격 안정세 지속 - 애플 및 OEM 수요, 스마트폰 신제품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15년에도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예상 - 영업활동을 통한 순현금 창출능력을 감안할 때 자사주 취득 및 주주배당을 통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 유효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LG생활건강, 엔씨소프트,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KCC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자동차: 과속카메라를 만난 수입차

■ 1분기 제대로 질주한 수입차

수입차의 질주가 심상치 않다. 수입차는 2014년 12월에 국내업체의 공세로 내수시장 점유율이 10.1%로 급락하며 잠시 주춤했다(2014년 평균 13.9%). 그러나 올해 1분기에 점유율 14.7%로 다시 급등했다. 질주의 배경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다. 연초부터 수입차 업체는 독일계 3사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현금할인 및 금융 인센티브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일례로 언론보도와 업계에 따르면 3월에 일부 딜러들은 아우디 A6 35TDI에 대해서 최고가의 22%를 할인(약 1,390만원)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고, BMW 520d 또한 정사가 대비 18% 할인(약 1,150만원)해 주기도 했으며 할부금융조건 또한 파격적으로 제시했다.

■ 수입차의 질주는 장기적 현상

수입차 점유율 확대는 장기 트렌드다. 이는 디젤엔진 선호, 차량 구매층의 평균소득 증가, 저금리 때문이다. 먼저 연비가 중요해지고 터보차저와 ISG(Idle Stop-Go, 공회전방지) 기능이 보편화되면서 디젤엔진 차량에 대한 선호가 늘었다. 이는 곧 디젤 라인업이 강한 수입차 수요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청년실업과 경기침체의 여파로 자동차의 주력 구매층의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이에 따라 차량 구매층의 평균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또한 차량가격과 수리비가 높은 수입차에 유리한 환경이다. 마지막으로 저금리도 할부금융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수입차에 더욱 긍정적이다.

■ 단 1분기의 가파른 수입차 점유율 상승세는 점차 둔화될 전망

수입차의 1분기 파죽지세는 2분기부터 한 풀 꺾일 전망이다. 공격적 인센티브는 규제에 대응해 구형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한시적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배기가스 규제는 유로 5 기준인 반면 유럽은 이를 강화한 유로 6다. 우리나라가 유로 6를 도입하는 올해 9월 이전에 수입차 업체는 유로 5 기준의 구형 모델 재고를 소진해야 한다(현대 기아차는 작년 9월부터 유로 6로 전환). 실제로 현재 할인 폭이 큰 모델들은 대부분 유로 5 기준이다. 게다가 1분기 수입차 출혈경쟁의 결과로 딜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예상보다 빠르게 구형 재고가 소진되면서 4월 들어 인센티브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유로 6 엔진 전환 시 유로 5에 비해 300만원 이상 가격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입차와 국산차의 가격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점도 점유율 상승세 둔화에 기여할 것이다.

■ 강세장 속 나홀로 약세장인 자동차에 다시 주목할 시점

현재 밸류에이션은 강세장에서 소외된 자동차 비중을 채우기에 부담 없는 수준이다. 추세적 상승을 위해서는 실적 회복 여건이 녹록치 않다. 그러나 1분기 이익 조정치 하향이 거의 마무리됐고 추가 약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 최근 유동성 장세를 감안 시 반등을 보이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한편 현대차 노조가 최근 통상임금에 대해 그룹사 공동교섭을 제안하면서 통상임금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공동교섭을 통한 일괄 타결은 협상 시한을 단축을 통한 불확실성 조기 해소 차원에서 노사 모두에 긍정적이다. 통상임금 관련해 협상조건이 유리한 현대차가 대표로서 협상을 주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소 조건이 불리한 계열사에게는 공동교섭이 나은 선택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5년 4월 1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

■ 인터넷은행 도입을 둘러싼 2008년 이후 세 번째 논의

전일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터넷은행(또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추진된 것은 2001년, 2008년 이후 세 번째이다. 2001년에는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중심이 되어 논의가 추진되었다가 수익모델과 규제 문제로 말미암아 무산되었다. 2008년에는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했었지만, 국회 정무위가 1) 부실가능성, 2) 수익모델 취약, 3) 과당경쟁 우려 등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조항을 삭제해 무산되었다. 전일 세미나는 세 번째 논의로, 2008년보다 은행산업 선진화 요구와 모바일 채널의 중요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올해 1월 각계각층이 모여 구성한 TF(태스크포스)팀에서 논의한 내용을 최초로 외부에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자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 은산분리 완화 비롯한 정책안 가시화

전일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인터넷은행의 지점 미보유로 인한 비용감소 사업모델은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초기 시스템 구축비용이 많이 소요될뿐더러, 시중은행들은 비용경쟁측면에서 충분한 자본여력을 발판으로 우위에 서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한 금융기관과 플랫폼 사업자를 비롯한 다양한 설립주체들의 제휴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산업자본과의 제휴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인터넷은행 생존의 핵심적인 조건이고, 이를 위해 은행법의 은산분리규정이 개정될 전망이다. 현재 비금융주력자는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의 4%를 초과 보유하지 못하는데, 이는 기술력 있는 ICT업체들이나 대부분이 산업자본과 연결되어있는 비은행금융기관들의 인터넷은행 진출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은산분리를 완화해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건전성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은행의 사금고화나 대주주 리스크 전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 서비스에 있어 핵심조건인 비대면 실명확인 등 모든 금융사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안인데, 관련 가이드라인은 5월에 제시되고, 올해 하반기 중에 변경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인터넷은행 관련 정부안은 6월에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까지의 논의는 은행법 개정에 주안을 두고 있지만, 해당 조치가 국회 차원에서 무산될 경우, 전자금융법이나 상호저축은행법으로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대체안도 TF에서 계속 논의될 것이다.

■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모델은 은행과 경쟁이 아닐 것. ‘비중확대’ 의견 유지

우리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은행(지주)의 수익모델을 훼손할 가능성은 낮게 본다는 의견을 이미 피력했다. 인터넷은행이 문제되는 가장 중요한 맥락은 한국적 현실에서는 ‘재벌의 은행업 진출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법 개정이 있어도 감독당국의 심사를 통해 대기업의 인터넷은행 사업진출이 차단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으로 키움증권에 대한 기업노트 보고서(2015년 1월 12일, ‘인터넷은행으로 변진 핀테크 논의!’)와 글로벌이슈분석(2015년 1월 21일, ‘Imagine the Fintech’)에서 우리가 지적한 것은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수익모델이다. 특히 수익모델로서 경쟁 대상을 은행으로 설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국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이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인만큼 이 사이의 금리 점프를 없애주는 특화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들어 비등했던 핀테크/인터넷은행 논의는 은행(지주)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해온 것으로 보이지만, 안심 전환대출의 추가 공급과 관련한 정책 해석에서 밝혔듯이 ‘소비자 및 시스템 보호를 앞세운 은행 희생 요구는 끝나가는 시점’이라는 진단은 변함없다. 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매수’ 의견 종목 중 KB금융(105560, 매수/TP 59,000원), 신한지주(055550, 매수/TP 63,000원), DGB금융지주(139130, 매수/TP 18,700원), 기업은행(024110, 매수/TP 20,000원)의 선호순서를 유지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5년 4월 1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코웨이(021240)

매수(유지)

목표가: 117,000원(상향)

종가(4/16): 94,900원

1Q15 Preview: 꾸준히, 앞으로

■ 완만한 실적 개선, 목표주가 117,000원으로 상향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106,000원에서 117,000원으로 10% 상향한다. 2015~2016년 평균 EPS에 역사적 상단 목표 PER 25배를 적용했다. 완만한 실적 개선과 밸류에이션 시점 변경에 따른 목표 주가 상향이고 현 주가에서 24% 상승 여력이 있다. 사모펀드로 인수된 2013년 수익성 level-up 이후 가파른 실적 상향에 대한 기대는 낮아졌으나 국내 환경 가전/렌탈 수요 증가와 코디 채널 및 영업력에 힘입은 완만한 성장, 렌탈 사업에 기반하는 높은 이익 가시성, 해외 사업의 확장 가능성 및 주주가치 우호정책이라는 투자 포인트가 유효하다. 2015, 2016년 배당수익률은 2.5%, 3.0%으로 예상된다.

■ 1분기 영업이익 시장 예상 부합, 렌탈 부문이 견인하는 실적 개선

1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대비 8% 증가한 5,751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1,062억원으로 시장 기대에 부합할 전망이다. 영업이익률은 18.5%로 전년 동기 대비 1.6%p 개선될 전망이다. 렌탈 매출액(비중 77%)이 전년대비 6.3% 증가하고 비렌탈 부문 매출(비중 20%)도 2분기 연속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전년대비 8.2% 증가할 것이다. 렌탈 계정수는 568만 계정으로 전년대비 3.9% 증가, ARPU는 전년대비 2.7% 상승이 예상된다. 렌탈 신규 판매가 전년대비 약 10% 증가하고 해지율이 월 1% 미만으로 전분기대비 계정 순증도 65,000건으로 비수기이나 계정 순증도 양호할 전망이다. 비렌탈 부문에서 일시불 매출과 화장품은 전년대비 각각 10%, 25% 증가하고 수출은 경쟁 심화와 높은 기저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ARPU 상승에 힘입어 원가율 하락이 예상되고 광고비, 수수료 등 주요 판관비도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 2015년 성장성 확대, 경쟁 심화 불구 핵심 지표들은 양호

2015년 연결 매출액 2.4조원(+9.4% YoY), 영업이익 4,374억원(+20% YoY)을 예상한다. 렌탈 매출은 7.3% 증가, 비렌탈 부문은 15% 성장으로 예상된다. 2013년 수익성 위주의 전략으로 인해 2013년, 2014년 외형 성장은 다소 저조했다. 2014년 신규 렌탈 판매와 계정 순증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금년 외형 회복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대홈쇼핑(053050, 매수/TP 190,000원)의 렌탈 자회사 설립으로 렌탈 사업에 대해 시장 성장 기대와 경쟁 심화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 코웨이는 경쟁업체들과의 매출 및 이익 격차가 크고 제품 경쟁력과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경쟁 요인에 대해 1) 신규 판매, 2) 가입자 해지, 3) 마케팅 비용을 주요 지표로 판단한다. 성장 사업군인 매트리스, 청정기뿐 아니라 주력인 정수기에서 신규 판매가 호조다. 해지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재구매와 가입자 유치를 위한 무리한 마케팅 비용도 감지되지 않는다. 고부가 신제품 출시, 채널 확장, 코디 및 영업 인력 확대로 경쟁에 대응하고 있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3A	2,118	339	245	3,283	159.1	537	20.2	9.5	4.9	28.4	4.1
2014A	2,160	364	250	3,361	2.4	578	25.1	11.0	5.6	25.2	2.4
2015F	2,364	437	327	4,407	31.1	661	21.5	10.8	5.6	29.4	2.5
2016F	2,567	488	368	4,957	12.5	721	19.1	9.8	5.0	29.0	3.0
2017F	2,796	538	408	5,491	10.8	782	17.3	9.0	4.4	28.5	3.4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5년 4월 1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롯데칠성(005300)

매수(유지)
목표가: 2,800,000원(상향)
종가(4/16): 1,984,000원

무학과 비교한 주류사업의 가치는?

■ 목표주가 280만원으로 상향

롯데칠성에 대한 목표주가를 기존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상향한다. 예상외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소주사업부의 실적 개선을 반영해 2015년 이후 영업이익을 3% 상향하고, 낮은 금리를 반영해 영업가치를 산출하는 DCF valuation 상 할인율을 낮췄다. Pepsi-Cola Philippines 등 투자유가증권의 가치 상승도 반영했다.

■ 주류 성장에 따라 주가 배수도 높아질 것

우리는 음식료 내 Top pick으로 동사를 계속 추천하는데, 1) 음료사업이 저점을 통과한 것뿐 아니라, 2) 주류사업의 성장이 valuation 배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소주사업이 도수 하락 및 신제품 판매 호조로 앞으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리고 맥주사업은 지난달 capa가 배증하며 공급 부족을 메우고 있다. 맥주는 적절한 제품 포지셔닝과 유통력으로 시장 내 점유율이 2018년에 20% 이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주류 매출액(별도기준)은 지난해 6,825억원에서 맥주 capa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2018년에는 1조 1,857억원으로 급증해 연결 매출액 내 비중이 30.1%에서 37.3%로 상승할 것이다. 주류 영업이익은 지난해 364억원에서 2018년 1,714억원이 돼 연결 영업이익 내 비중이 35.5%에서 49.7%로 비약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음료사업대비 주류사업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매우 길어 영업의 안정성이 높고 브랜드별 매출액 절대규모가 높은 장점이 있다. 즉 동사의 경우 주류사업의 비중이 올라가면 판매처로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마케팅 효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에서와 같이 세계적으로 주류업체가 음료업체대비 20% 이상 주가 배수가 높은 것이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한다.

■ 무학과 비교해도 롯데칠성의 적정주가는 280만원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중인 소주 3위 업체 무학의 주가와 비교해도 동사의 주가는 280만원 정도로는 올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기준 롯데칠성의 소주매출액은 3,371억원으로 무학의 2,287억원 대비 47%가 많았고 전년대비 성장률도 14.7%로 무학의 7.7% 대비 높았다. 영업이익률로 본다면 무학이 롯데칠성 대비 앞서 있으나 회사의 규모가 커질 수록 인건비 등 고정비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치평가에 수익성이 매출액보다 더 중요한 잣대라 보기는 어렵다. 소주사업은 주요 원재료인 주정의 구매가격이 업체별로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가치평가의 기준은 매출액 규모가 적합하다.

현재 롯데칠성의 시가총액은 무학의 시가총액 대비 203%로 소주 매출액 초과 비율 147%와 아주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동사는 1조 4천억원 외형의 음료사업이 있는데다 서초동부

지와 같은 비영업용자산의 규모도 막대하다. <표 3>에서와 같이 현재 시가총액에서 서초동부지의 가치를 제외하거나 소주의 사업의 가치를 제외할 경우 무학 대비 시가총액은 129~138% 수준으로 소주 매출액 초과 비율 147%보다 낮다. 즉 현재의 시가총액은 소주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비영업용자산 혹은 음료 등 소주의 사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서초동부지와 소주의 사업부의 가치를 제거할 경우 롯데칠성의 시가총액은 무학의 시가총액의 63%에 불과해 소주시장에서의 경쟁 우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무학의 컨센서스 기준 2015년 예상 PSR 4.6배를 롯데칠성의 소주사업부에 적용하고 타사업부에 시장 평균 배수를 적용해 평가하면 <표 4>에서와 같이 동사의 적정주가는 역시 280만원으로 산출된다.

■ 맥주 공급 부족 해결, 소주는 도수 하락과 ‘처음처럼 순하리’ 로 예상 밖 선전

지난해 2분기부터 맥주사업이 시작되었고 지난달에 맥주 생산 capa가 100,000kl로 배증했기 때문에 주류사업의 매출액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의 계획은 2017년말까지 맥주 capa를 200,000kl 이상을 추가해 2018년 이후 맥주 점유율을 20% 이상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우리는 ‘Kloud’ 가 포지셔닝한 프리미엄 라거 시장이 앞으로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하며, ‘Kloud’ 가 경쟁 수입품대비 저렴하며, 그룹의 유통력이 강해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본다. 소주도 성장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 연말에 ‘처음처럼’ 의 도수를 18도에서 17.5도로 낮춘 뒤 현재까지 10%대 중반의 매출액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 3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처음처럼 순하리’ 는 저도주 애호가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소맥’ 이 유행하듯 한국 주류시장은 당분간 저도주 선호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처럼 순하리’ 는 14도의 리큐르로 이러한 니즈에 부합할 제품이다.

■ 1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 예상

1분기 영업이익이 당초 우리의 예상 369억원보다 많은 413억원(+4.4%YoY)를 기록해 컨센서스를 10.9%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실적이 호전은 전년동기대비 감익할 것으로 예상됐던 음료의 수익성이 비용 절감과 고마진 제품인 탄산음료와 탄산수의 매출액 증가로 개선됐기 때문이다. 탄산음료 매출액은 지난해에 극심한 음료경기 침체로 9년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1.4% 역성장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2~3%로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탄산수 ‘트레비’ 매출액은 2013년 30억원에서 2014년 180억원으로 급증했고 현재도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수익성이 좋아 현재 규모에서도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 이익 증가에 보탬이 되고 있다. 트레비 매출액은 올해 300억원을 넘어설 것이다. 주류에서는 소주 매출액이 10%대 중반, 그리고 청하, 위스키 등 기타 주종의 매출액과 이익도 한자릿수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맥주는 생산 능력이 확충된 3월 중순 이후로 매출액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은 적자인 상태로 1분기에는 감익 요인이 되었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3A	2,216	172	101	74,371	21.6	280	20.5	8.7	0.9	4.3	0.2
2014A	2,271	102	21	15,415	(79.3)	211	96.3	11.5	0.9	0.9	0.3
2015F	2,463	166	69	50,788	229.5	270	39.1	11.8	1.1	2.9	0.2
2016F	2,602	215	94	69,487	36.8	348	28.6	10.2	1.1	3.9	0.2
2017F	2,755	247	109	80,256	15.5	416	24.7	8.5	1.0	4.3	0.2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5년 4월 1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송승연(seungyeon.song@truefriend.com) ☎ 02-3276-6273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4/10(금)	4/13(월)	4/14(화)	4/15(수)	4/16(목)	4/17(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87.76	2,098.92	2,111.72	2,119.96	2,139.90	2,143.50	
	등락폭	28.89	11.16	12.80	8.24	19.94	3.60	
	등락종목	상승(상한)	509(4)	450(13)	349(7)	502(16)	459(6)	464(8)
		하락(하한)	313(0)	363(0)	483(0)	306(0)	354(0)	347(0)
	ADR	124.31	126.12	120.20	125.32	124.59	126.47	
	이격도	10 일	101.97	102.18	102.45	102.39	102.80	102.49
		20 일	102.45	102.71	103.13	103.31	104.02	103.93
	투자심리	80	80	80	90	90	90	
	거래량 (백만 주)	658	562	649	451	476	458	
	거래대금 (십억 원)	6,415	7,020	8,052	7,379	7,320	6,249	
코스닥	코스닥지수	682.02	689.39	684.97	694.44	698.31	706.90	
	등락폭	5.06	7.37	-4.42	9.47	3.87	8.59	
	등락종목	상승(상한)	509(26)	450(23)	349(13)	502(21)	459(13)	603(15)
		하락(하한)	313(0)	363(2)	483(4)	306(2)	354(0)	377(5)
	ADR	106.07	106.17	102.47	110.17	111.65	112.91	
	이격도	10 일	103.15	103.59	102.40	103.13	102.98	103.50
		20 일	104.92	105.62	104.55	105.47	105.52	106.29
	투자심리	80	80	80	90	90	90	
	거래량 (백만 주)	602	709	829	620	699	660	
	거래대금 (십억 원)	4,220	4,631	5,380	3,986	4,543	4,849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3,474.7	1,580.0	1,169.5	254.6	150.2	226.4	94.6	60.7	383.07	59.3
	매도	3,623.4	1,299.9	1,307.7	273.3	167.6	425.5	124.9	41.8	274.6	52.5
	순매수	-148.7	280.1	-138.2	-18.7	-17.4	-199.1	-30.3	18.9	108.5	6.8
	4월 누계	-444.4	2,152.1	-1,560.0	-445.5	-99.4	-1,793.3	165.4	37.4	575.4	-147.7
	15년 누계	-1,848.2	5,299.2	-4,546.4	-2,757.6	-26.2	-4,363.3	-207.2	153.4	2,654.7	1,095.3
	코스닥	매수	4,340.0	264.9	257.8	69.8	29.3	45.4	37.8	13.2	62.3
매도		4,304.4	350.2	198.0	54.1	18.4	50.8	23.1	5.0	46.6	41.6
순매수		35.6	-85.3	59.8	15.7	10.9	-5.3	14.7	8.2	15.6	-10.0
4월 누계		373.5	2.1	-276.1	-64.5	2.4	-138.3	-25.6	1.3	-51.3	-99.5
15년 누계		894.6	-210.7	-50.0	-144.1	160.6	-137.4	-108.3	24.3	154.9	-633.9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철강및금속	12,135	전기,전자	-53,008
비금속광물	84	화학	-27,136
		서비스업	-27,102
POSCO	14,846	삼성전자	-33,702
KODEX 200	10,374	NAVER	-8,672
삼성증권	5,302	아모레퍼시픽	-7,797
신세계	2,312	GS	-7,764
롯데푸드	2,089	한국전력	-6,988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15,838	철강및금속	-5,605
통신업	13,937	증권	-2,147
서비스업	10,577	섬유,의복	-594
SK텔레콤	13,738	LG화학	-9,909
기아차	6,551	현대하이스코	-4,680
NAVER	6,380	현대제철	-3,732
KT&G	5,208	한전기술	-3,542
현대상사	4,971	SK C&C	-3,345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4,538	음식료품	-1,225
화학	3,623	운수장비	-1,079
운수창고	2,910	보험	-740
LG생활건강	2,957	KODEX 레버리지	-4,503
삼성전자	2,906	현대중공업	-3,401
KODEX 200	1,796	CJ제일제당	-1,938
현대차	1,665	LG이노텍	-1,296
풍산	1,404	삼성SDI	-998

보			
순 매 수		순 매 도	
음식료품	8,254	전기,전자	-10,103
의약품	4,124	운수장비	-5,792
보험	1,905	철강및금속	-3,866
KODEX China H	5,961	현대차	-6,616
LG생활건강	4,904	삼성전자	-5,704
한라홀딩스	4,796	SK하이닉스	-4,936
CJ제일제당	4,137	POSCO	-4,328
KODEX 200	3,854	대우조선해양	-3,118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음식료품	16,716	전기,전자	-88,082
의약품	14,724	화학	-21,740
철강및금속	5,059	서비스업	-15,945
KODEX 레버리지	36,347	삼성전자	-53,992
기아차	14,997	KODEX 인버스	-25,715
삼성생명	11,423	현대중공업	-14,798
LG생활건강	10,176	SK하이닉스	-12,266
TIGER 원유선물(H)	10,052	현대제철	-11,012
POSCO	8,956	GS	-10,578
SK텔레콤	8,146	아모레퍼시픽	-10,548
KT&G	7,270	한국전력	-10,532
한라홀딩스	7,104	현대건설	-10,161
LG디스플레이	7,040	제일모직	-8,243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61,412	철강및금속	-12,000
전기가스업	51,203	의약품	-8,371
금융업	46,706	음식료품	-6,938
한국전력	51,105	LG생활건강	-21,687
SK하이닉스	24,192	POSCO	-15,576
현대모비스	23,340	삼성중공업	-13,089
삼성전자	21,312	KT&G	-7,690
신한지주	17,563	LG생활건강우	-5,912
KB금융	15,368	한진해운	-5,316
현대차	11,680	한라홀딩스	-5,080
NAVER	11,226	삼성증권	-4,950
삼성전자우	11,061	한미약품	-4,275
삼성생명	10,404	대림산업	-3,773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도매	1,350	계약	-3,194
전문기술	1,119	IT부품	-2,178
소프트웨어	891	디지털컨텐츠	-2,121
씨티씨바이오	1,765	셀트리온	-2,690
CJ E&M	1,092	이녹스	-1,649
이엠텍	1,082	컴투스	-1,391
뷰웍스	1,057	동서	-1,163
메디톡스	1,057	OCI머티리얼즈	-1,029

은행		보험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계약	1,032	인터넷	-677
도매	929	금속	-241
오락,문화	875	출판,매체복제	-111
파라다이스	992	다음카카오	-677
휴비츠	676	삼천당계약	-366
파인테크닉스	571	대륙제관	-253
씨티씨바이오	536	한진피앤씨	-231
메디톡스	509	유아이엘	-228

(체결기준: 백만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전문기술	9,474	디지털컨텐츠	-5,954
소프트웨어	6,198	미분류	-4,986
통신서비스	5,846	출판,매체복제	-2,100
메디포스트	11,090	셀트리온	-15,691
CJ E&M	7,922	차이나그레이트	-4,847
파라다이스	6,694	에스엠	-3,286
메디톡스	5,522	컴투스	-3,203
유진기업	4,901	홈캐스트	-2,353
SK브로드밴드	4,728	위메이드	-1,916
CJ오쇼핑	4,515	동서	-1,729
차바이오텍	3,123	바이넥스	-1,671
마크로젠	2,723	OCI머티리얼즈	-1,573
AP시스템	2,217	이녹스	-1,555

연구,개발		소매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연구,개발	3,504	기계,장비	-959
소매	1,482	디지털컨텐츠	-850
계약	1,156	통신장비	-685
마크로젠	3,545	셀트리온	-1,248
메디포스트	2,039	바이넥스	-955
서부T&D	1,482	휴맥스	-460
뷰웍스	1,054	삼목에스폼	-455
메디톡스	962	유니테스트	-443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의료,정밀기기		통신장비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의료,정밀기기	5,600	계약	-69,366
통신장비	5,333	인터넷	-13,703
기계,장비	3,291	미분류	-4,692
오스템임플란트	5,048	셀트리온	-67,778
코스온	4,074	다음카카오	-14,219
메디톡스	2,996	씨케이이에치	-4,441
웹젠	2,533	셀바이오텍	-3,989
골프존유원홀딩스	1,957	원익IPS	-3,533
GS홈쇼핑	1,877	CJ오쇼핑	-3,092
마크로젠	1,475	코나아이	-1,952
이오테크닉스	1,344	동서	-1,819
고영	1,317	파트론	-1,806
리후쿠첸	1,211	동국제약	-1,76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일성신약	44 일	삼성정밀화학	31 일
대림산업	12 일	삼성카드	27 일
TIGER 원유선물(H)	12 일	경방	20 일
TIGER 레버리지	11 일	NAVER	16 일
아세아	10 일	한일시멘트	15 일
TIGER S&P500선물(H)	9 일	국도화학	15 일
S&T중공업	7 일	디와이	14 일
삼성엔지니어링	7 일	현대제철	13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유진기업	9 일	포스코엠텍	11 일
파라다이스	8 일	에이테크솔루션	9 일
우주일렉트로	5 일	하이록코리아	7 일
휴맥스	5 일	KCC건설	6 일
SK브로드밴드	4 일	GS홈쇼핑	6 일
KTH	4 일	솔브레인	5 일
메디포스트	4 일	넥슨지티	5 일
차바이오텍	4 일	평화정공	5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228,438	삼성전자	221,225
기아차	63,197	한국전력	122,915
제일모직	56,323	호텔신라	98,724
TIGER 원유선물(H)	45,704	NAVER	98,690
KB금융	27,862	SK하이닉스	91,819
SK텔레콤	15,332	신한지주	58,754
롯데칠성	14,431	삼성물산	56,677
삼성SDI	13,905	LG	50,194

KOSDAQ			
기	관	외	국 인
파라다이스	28,853	셀트리온	7,941
유진기업	9,707	동서	6,615
한글과컴퓨터	8,112	웹젠	6,178
CJ E&M	7,642	솔브레인	4,867
코나아이	6,323	리홈쿠펜	4,833
인트론바이오	5,820	GS홈쇼핑	3,939
아프리카TV	4,072	오스템임플란트	3,852
SK브로드밴드	4,027	에스에프에이	3,699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보험		358	27,065
유통업		431	18,671
섬유,의복		1,980	3,574
KODEX 레버리지		36,347	1,138
기아차		14,997	9,288
삼성생명		11,423	10,404
SK텔레콤		8,146	4,063
KODEX 200		4,224	5,269
삼성물산		1,127	7,871
현대글로벌비스		3,651	4,708
신세계		4,860	2,906
현대차2우B		3,123	2,134
쿠쿠전자		269	4,797
합	계		

KOSDAQ			
종	목	기	관
전문기술		9,474	177
의료,정밀기기		2,093	5,600
통신서비스		5,846	63
메디포스트		11,090	775
메디톡스		5,522	2,996
코스온		1,114	4,074
마크로젠		2,723	1,475
차바이오텍		3,123	873
골프존유원홀딩스		1,202	1,957
AP시스템		2,217	511
GS홈쇼핑		460	1,877
인트론바이오		1,075	940
아프리카TV		1,933	74
합	계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LG	40 일	넥센타이어	16 일
모토닉	30 일	화신	7 일
한라비스테온공조	30 일	일성신약	6 일
TREX 펀더멘탈 200	23 일	부광약품	5 일
SK네트웍스	22 일	삼양홀딩스	4 일
현대모비스	22 일	대림산업	4 일
TIGER 증권	22 일	대덕GDS	4 일
일진전기	19 일	농심	4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에이테크솔루션	100 일	파라다이스	10 일
크루셜텍	12 일	태광	7 일
이오테크닉스	10 일	에스엔유	6 일
동국산업	9 일	원익IPS	5 일
위메이드	8 일	루멘스	4 일
동서	6 일	매일유업	3 일
평화정공	6 일	성우하이텍	3 일
실리콘웍스	6 일	유진기업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259,452	아모레퍼시픽	-66,681
KODEX 인버스	-119,790	POSCO	-39,290
현대제철	-71,628	LG생활건강	-35,152
현대모비스	-68,327	도레이케미칼	-17,303
한국전력	-48,503	대림산업	-15,204
현대상사	-44,762	삼성중공업	-13,448
SK하이닉스	-44,463	한국금융지주	-13,361
현대차	-36,414	키움증권	-11,484

KOSDAQ			
기	관	외	국 인
셀트리온	-100,714	다음카카오	-25,132
동서	-23,891	파라다이스	-20,978
이오테크닉스	-14,788	원익IPS	-18,458
삼성엘엔에스	-12,162	STS반도체	-8,262
위메이드	-11,794	서울반도체	-6,635
코스온	-7,581	바이넥스	-6,449
게임빌	-6,620	셀바이오텍	-6,377
마크로젠	-5,215	성우하이텍	-6,014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화학	-21,740	-2,247	-23,988
제조업	-8,042	-1,721	-9,763
종이, 목재	-2,681	-406	-3,087
아모레퍼시픽	-10,548	-2,816	-13,363
대한항공	-6,490	-2,885	-9,376
LG이노텍	-7,471	-1,742	-9,213
KT	-6,206	-2,193	-8,399
삼성SDI	-5,830	-667	-6,497
한진해운	-1,067	-5,316	-6,382
LG유플러스	-1,252	-3,746	-4,997
SK C&C	-2,801	-2,061	-4,862
CJ CGV	-2,137	-1,671	-3,808
키움증권	-2,359	-1,075	-3,434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미분류	-4,986	-4,692	-9,678
디지털콘텐츠	-5,954	-667	-6,621
출판,매체복제	-2,100	-641	-2,741
셀트리온	-15,691	-67,778	-83,469
다음카카오	-208	-14,219	-14,427
차이나그레이트	-4,847	-275	-5,122
에스엠	-3,286	-987	-4,273
셀바이오텍	-87	-3,989	-4,076
원익IPS	-303	-3,533	-3,836
동서	-1,729	-1,819	-3,548
컴투스	-3,203	-22	-3,225
바이넥스	-1,671	-958	-2,629
홈캐스트	-2,353	-205	-2,558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한미약품	38	11,478	
한화케미칼	569	8,527	
현대제철	104	8,008	
현대모비스	32	7,603	
롯데케미칼	29	6,899	
OCI	61	6,795	
기아차	125	5,839	
SK이노베이션	50	5,76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309	27,855	
삼성엘앤에스	68	6,186	
파라다이스	226	5,708	
컴투스	18	3,200	
룽투코리아	129	1,697	
다음카카오	14	1,544	
바이로메드	17	1,441	
이오테크닉스	13	1,281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658	6,879,949
현대중공업	8,924	1,334,145
POSCO	4,672	1,196,031
삼성에스디에스	3,481	953,717
SK하이닉스	21,282	947,053
현대차	4,954	837,304
대우조선해양	41,006	834,466
삼성중공업	39,753	797,04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1,087	1,842,982	
다음카카오	6,292	717,320	
CJ E&M	411	551,342	
파라다이스	13,322	339,701	
컴투스	1,651	301,486	
위메이드	1,600	246,144	
서울반도체	7,642	151,305	
에스엠	4,091	140,132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증권	8,938	운수장비	-5,203
운수창고	4,015	유통업	-3,637
보험	956	서비스업	-3,577
SK증권	6,632	기아차	-1,704
KODEX 200	1,965	현대중공업	-1,577
아시아나항공	1,824	삼익악기	-1,290
팬오션	1,378	호텔신라	-1,271
남선알미늄	1,327	삼성엔지니어링	-1,231
대덕전자	1,143	월비스	-1,217
한화케미칼	969	현대산업	-1,079
SH에너지화학	906	두산인프라코어	-1,014
메리츠화재	846	SK하이닉스	-931
삼성중공업	836	신한지주	-89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화학	1,029	IT부품	-880
제약	910	의료,정밀기기	-663
반도체	857	소프트웨어	-502
신화인터텍	870	파트론	-481
셀트리온	834	로만손	-445
유진기업	743	코엔텍	-400
원익IPS	484	다음카카오	-370
에스앤씨엔진그룹	439	아가방컴퍼니	-323
하림홀딩스	347	대아티아이	-323
한국토지신탁	347	인터파크홀딩스	-297
에이블씨엔씨	292	성광벤드	-286
디에이치피코리아	282	SK브로드밴드	-280
한국자원투자개발	272	심텍	-258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4/13(월)	4/14(화)	4/15(수)	4/16(목)	4/17(금)
외국인	5,299.2	2,152.1	1,642.6	277.0	392.6	322.4	370.3	280.1
기관계	-4,546.4	-1,560.0	-1,184.0	-284.7	-148.1	-344.9	-268.1	-138.2
(투신)	-4,363.3	-1,793.3	-1,027.6	-179.9	-118.8	-259.9	-269.8	-199.1
(연기금)	3,168.7	674.6	320.2	40.6	73.0	21.6	84.2	100.8
(은행)	153.4	37.4	11.7	12.5	-1.0	-17.3	-1.4	18.9
(보험)	-26.2	-99.4	-118.6	-27.2	-32.1	-53.8	12.0	-17.4
개인	-1,848.2	-444.4	-431.1	22.2	-221.0	18.2	-101.8	-148.7
기타	1,095.3	-147.7	-27.4	-14.5	-23.6	4.2	-0.4	6.8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2	2013	2014	4/10(금)	4/13(월)	4/14(화)	4/15(수)	4/16(목)
KOSPI	1,997.1	2,011.3	1,915.6	2,087.8	2,098.9	2,111.7	2,120.0	2,139.9
고객예탁금	18,014.3	14,211.8	15,842.5	19,213.9	19,966.8	20,221.3	21,128.9	21,213.4
(증감액)	334.1	-3,802.5	1,630.7	119.9	752.9	254.5	907.6	84.5
(회전율)	26.7	29.9	34.0	55.3	58.4	66.4	53.8	55.9
실질예탁금증감	-13,998.7	-10,125.7	-2,121.1	7.1	825.9	-35.6	837.7	-60.9
신용잔고(KOSPI)	2,202.9	2,289.7	2,533.3	3,173.6	3,217.0	3,221.7	3,277.5	3,314.6
신용잔고(KOSDAQ)	1,709.5	1,893.1	2,537.4	3,642.1	3,683.8	3,735.3	3,782.9	3,782.3
미수금	1,241.0	929.0	1,176.0	166.1	163.5	154.0	193.8	239.1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4/10(금)	4/13(월)	4/14(화)	4/15(수)	4/16(목)
전체 주식형	78,176	-2,713	-1,260	-28	-138	113	-291	-297
(ex. ETF)		-2,462	-1,146	-14	-122	-9	-296	-183
국내 주식형	61,421	-3,316	-1,555	-76	-162	118	-317	-314
(ex. ETF)		-3,081	-1,441	-62	-146	-4	-322	-200
해외 주식형	16,755	604	295	48	24	-5	26	17
(ex. ETF)		619	295	48	24	-5	26	17
주식 혼합형	9,599	-957	-322	-29	1	-141	-66	-33
채권 혼합형	25,770	-1,560	425	-2	119	-12	-18	56
채권형	78,563	5,603	1,321	155	-50	17	53	-72
MMF	117,745	34,985	16,277	-1,536	1,890	1,006	1,917	2,06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4/10(금)	4/13(월)	4/14(화)	4/15(수)	4/16(목)
한 국	4,526	1,712	1,128	263	252	360	295	340
대 만	3,265	-500	-381	120	79	-106	-692	335
인 도	6,347	347	-116	73	74	-	-	-
인도네시아	411	-25	-263	-6	-52	-40	-51	-
태국	-221	36	-114	-8	-	-	-	-
남아공	1,519	213	-106	86	60	-150	-33	-
필리핀	1,028	-40	-69	-9	-19	-8	-33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4년말	4/10(금)	4/13(월)	4/14(화)	4/15(수)	4/16(목)	4/17(금)
회사채 (AA-)	2.43	1.96	1.98	1.98	1.97	1.98	1.94
회사채 (BBB-)	8.26	7.86	7.87	7.88	7.87	7.88	7.84
국고채 (3년)	2.10	1.71	1.73	1.73	1.72	1.72	1.69
국고채 (5년)	2.28	1.80	1.83	1.84	1.82	1.84	1.80
국고채 (10년)	2.60	2.07	2.10	2.12	2.12	2.16	2.11
미 국채 (10년)	2.20	1.95	1.93	1.90	1.89	1.89	-
일 국채 (10년)	0.33	0.35	0.34	0.33	0.33	0.33	-
원/달러	1,099.30	1,092.70	1,098.60	1,094.00	1,096.80	1,088.90	1,083.70
원/엔	920.30	909.07	914.	910.38	919.05	912.97	908.61
엔/달러	119.45	120.20	120.20	120.17	119.34	119.27	119.27
달러/유로	1.22	1.06	1.06	1.06	1.06	1.07	1.07
DDR3 1Gb (1333MHz)	1.34	1.25	1.25	1.24	1.24	1.24	-
DDR3 2Gb (1333MHz)	2.21	2.05	2.04	2.02	2.02	2.01	-
NAND Flash 16Gb (MLC)	2.18	1.89	1.89	1.89	1.89	1.89	-
CRB 지수	233.24	217.67	217.37	219.59	224.15	226.29	-
LME 지수	2,907.6	2,771.0	2,750.0	2,748.7	2,759.3	2,759.3	-
BDI	782	580	578	581	586	586	-
유가 (WTI, 달러/배럴)	53.61	51.64	51.91	53.29	56.39	56.71	-
금 (달러/온스)	1,185.50	1,207.35	1,198.90	1,194.75	1,192.90	1,204.35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3	14	15	16	17
日> 2월 기계수주 MoM (-0.4%, -2.2%, -1.7%) 中> 3월 수출 YoY (-14.6%, 8.2%, 48.9%) 3월 수입 YoY (-12.3%, -11.3%, -20.1%)	美> 3월 소매판매 추정 MoM (0.9%, 1.1%, -0.6%) 中> 3월 M2 통화공급 YoY (11.6%, 12.4%, 12.5%) 3월 신규대출 (십억 위안) (1,180, 1,040, 1,020)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 中> 1분기 GDP YoY (7.0%, 7.0%, 7.3%) 3월 광공업생산 YoY (5.6%, 7.0%, n/a) 美> 3월 광공업생산 MoM (-0.6%, -0.3%, 0.1%) Bullard 연준이사 연설 독일> 3월 최종 소비자물가지수 YoY (0.3%, 0.3%, 0.3%)	美> 3월 주택착공건수(천건) (926, 1,040, 897) Lacker 연준이사 연설	美> 3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n/a, 0.3%, 0.2%) 4월 예비 미시간대 소비자지수 (n/a, 93.7, 93.0) Lockhart 연준이사 연설 유럽> 3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0.1%, -0.1%)
20	21	22	23	24
실적발표> 韓 대림산업 美 모간스탠리	독일> ZEW 서베이 예상 (n/a, 55.0, 54.8) 실적발표> 韓 포스코, LG생활건강 美 IBM, 두폰, 트레블러스, 유니아이티드 테크놀로지 버라이즌, 야후, 암젠	日> 3월 무역수지(십억엔) (n/a, 6.3, -424.6) 美> 3월 기존주택매매(백만건) (n/a, 5.01, 4.88) 실적발표> 韓 LG디스플레이, 쌍용차 신한금융지주 美 보잉, 코카콜라, 맥도날드 AT&T, 이베이, 페이스북,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韓> 1분기 GDP 잠정치 YoY (n/a, 2.3%, 2.7%) 中> 4월 예비 HSBC 제조업 PMI (n/a, 49.4, 49.6) 유럽> 4월 예비 마킷 제조업 PMI (n/a, 52.5, 52.2) 美> 3월 신규주택매매(천건) (n/a, 509, 539) 실적발표> 韓 KT&G, 현대차 美 P&G, 마이크로소프트 캐터필러, 쓰리엠, 쉘컴, 제너럴 모터스, 스타벅스, 구글, 아마존	美> 3월 내구재 주문 (n/a, 0.6%, -1.4%)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n/a, 108.2, 107.9) 유럽>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실적발표> 韓 삼성전기, 현대위아, 만도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기아차 美 바이오젠
27	28	29	30	5/1
	美> 4월 소비자지수	美> 1분기 GDP QoQ 독일> 4월 예비 소비자물가지수	美> FOMC 통화정책회의 3월 개인소득 韓> 3월 광공업 생산 YoY 日> 3월 예비 광공업생산 MoM 유럽> 3월 실업률	韓> 4월 수출 YoY 4월 수입 YoY 4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中> 4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美> 4월 ISM 제조업지수 4월 미시간대 소비자지수

☞ 주: 괄호안은(발표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식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야침)